2018 vol.221 | 12 December

voiceye.com KOR VOICEYE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평생의 내 직장을 위하여

테마기획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나면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인 터 뷰
녹음도서 봉사로 시각장애인의 독서 생활 도운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김정숙 씨

포 커 스
풍선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풍선 아티스트 고홍석 작가의 '예술은 생각하지마!'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루돌프

04 | 시선집중
- 평생의 내 직장을 위하여
  조재훈(작가)

06 |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나면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08 | 인터뷰
- 녹음도서 봉사로 시각장애인의 독서 생활 도운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김정숙 씨

10 | 포커스
- 풍선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풍선 아티스트 고홍석 작가의 '예술은 생각하지마!'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사랑에 빠진 아내
  이진규(시각 1급_경기도 의정부시)

13 | 월드 리포트
- 미국 시각장애인, 자폐증 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위해 450마일 걸어
- 14시간 완주의 감동 와카나, 2020년 장애인 올림픽 육상대회 출전할래요!

14 | 뉴스앨범
- 노원구청, 구의회와 함께 신나게 달려요!
- 서울 SK 나이츠 김선형 선수, 한시련에 AI 스피커 기증
- LG유플러스와 사랑의 김장김치를 함께 나눠요!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장애인용 TV 증정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KOR VOICEYE voiceye.com

12월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루돌프를 타고 선물을 전하러 오는데요.

루돌프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루돌프

입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쌍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문장부호	:	가운뎃점(·)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		대괄호[ ]						
영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영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 ⠽ 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평생의 내 직장을 위하여

조재훈(작가)

놀고먹는 게 자랑이던 때가 있었다. 계급사회이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상류층에 올라가 놀고 지내며 유유자적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소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직장을 원하고 있다. 놀고 지내기가 더 힘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직장이 전과 달라서 시간의 여유가 많아진 탓도 있으리라. 그리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은 거의 기계가 대신하고 있으니 어떤 노동이라도 감당할 수 잇게 되었다. 거기에 사람은 반복되는 일을 싫어하고 있다. 그 때문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무간지옥이란 사이를 두지 않고 같은 형벌이 계속되는 지옥을 이르는 말이다. 끓는 물이나 불구덩이보다도 쉴 틈이 없이 이어가는 고통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문 가운데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고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직장이고 8시간씩 5일 근무에다 공휴일이 심심치 않게 들어있다. 도대체 직장을 놀러 다니는 것인지,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매일 같이 노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100세 인생에다 60세도 안 되는 나이에 조기 퇴직도 문제이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강박에 생활조건이 열악하여 단명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70세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요즘은 주변에서 90세에 이르는 분들까지 보게 된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여전히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현직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망하여 애석함을 더해주는 때가 있다. 그 이유인즉 이분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휴식도 즐길 줄 알아야겠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생업은 주지하는 바 역리업과 이료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업종은 시각장애인들의 적성에도 맞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천직으로 여길만 하였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 밖에 이렇다 할 일거리도 없었다. 그래서 이 역리업과 이료업에 매달려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꾸준히 지켜오며 계발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이 연륜과 더불어 생활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명성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역리업이나 이료업자 하면 시각장애인으로 사회에 인식되게 되었다.

한 때 역리학이 미신이라고 매도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법인체로까지 등록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아 아쉽게 여기고 있다. 또 요즘 맹학생들은 이료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장애인들의 직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신 직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대학을 나온 뒤에는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직종인 교사나 복지사로 나아가기가 십상이다. 우수한 시각장애인 인재들이 도전해 나가

VOICEYE
KOR
voiceye.com

는 가운데 보다 나은 직업을 개척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높은 성적에 의해 취득한 교사자격증으로 교단에 서게 된 것 까지는 좋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공과는 달리 실기가 절대적이라 할 이료실습을 맡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미비 된 제도 탓이라 해야겠다. 이 미비 된 제도 때문에 하마터면 이료교육까지 위기에 놓일 뻔 했다. 그러나 다행히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었다. 교사자격증 하면 누구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여 따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료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이료교사 자격증을 연수에 의해 취득할 수 있게 한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이나 맹학교 교사들의 노고는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자격 이료교사의 수업은 누가 보아도 무효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난제가 있었다. 그것은 맹학교 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 아무리 유능한 이료과 선생님을 모셨어도 크게 역할을 할 이료인의 배출이 어렵게 되었다. 해방 후 안마계는 법제화 문제로 약 30년을 난관에 봉착하였었다. 그러나 비록 안마사자격증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도 닦아온 실력에 의해 직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격증을 받아도 실력이 없으면 사회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안마가 정안인들의 표적이 되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은 직업 평등권에도 위배된다하여 법정에도 몇 번씩 오르게 되었던 사실은 기억이 새롭지 않은가?

앞에서 평생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직종이 우리 시각장애인의 적성에 맞을까? 그동안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오며 발전시킨 공도 그렇지만 역리업과 이료업만큼 적합한 직종도 없다 하겠다. 우선 이 두 직종은 출타를 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들 에게 가장 큰 난제는 이동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역리업과 이료업은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손님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직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장소와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의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은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업 초기에는 수입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험과 아울러 독자적인 비법도 터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경륜을 높이 쌓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대가는 유명인에 상당한 수입에 명예도 얻고 있다. 이 두 직종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성과 아울러 존경을 받게 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의 관심으로 이 두 직종을 앞으로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누구나 평생직장을 원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그런데 자칫 우리의 천직을 소홀히 여기다가 평생직장을 잃게 될까 걱정이 된다. 목숨을 다 기울이다시피 하여 지켜온 천직 젊은 인재들의 참여로 평생토록 누려가도록 함이 어떨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나면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고 있는 귀여운 안내견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순하고 귀여운 안내견을 보면 쓰다듬어주는 등 안내견의 관심을 끌고 싶어지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귀여운 안내견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내견에게 함부로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내견들은 시각장애인을 만나기까지 많은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생후 7주 후부터 자원봉사자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람과 살면서 필요한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 기본 훈련과 보행, 교통 복종, 지시불복종(장애물이 있을 시 다른 방향으로 이끎) 훈련을 마친 후 적합 판정 시 예비 주인과 면접을 보고 주인에 대한 교육을 마친 뒤 안내견으로써의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안내견들은 식사, 배변 등의 훈련을 받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배변을 하는 안내견들은 낯선 사람이 간식을 주게 될 경우, 배변 실수를 하거나 집중력 분산은 물론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귀엽다고 음식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안내견이 생소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불러보거나 만져보는 등의 행동을 취하곤 합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안내견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사진을 찍을 경우 시각장애인 분이 난처해질 수 있으므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은 마음으로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보행 안전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건널 시 신호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색맹이므로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를 듣고 보행을 시작하거나 보행자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게 되는데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경우 안내견은 이를 보행 신호로 착각해 따라 나서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안내견과 함께 모든 공공장소 출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내견은 다른 반려견들과는 달리 배변 훈련이 철저히 되어 있고 예방접종 및 구충 등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사람을 보고도 절대 흥분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안내견을 동반한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 받아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안내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올바른 보행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음도서 봉사로 시각장애인의 독서 생활 도운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김정숙 씨

28년 동안 꾸준히 녹음도서 봉사를 실천해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생활을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 82세이신 김정숙 씨인데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을 수상하신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녹음도서 봉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 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녹음도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처음 녹음도서 봉사를 진행한 것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친구가 복지관 근처에 살고 있어 놀러오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녹음도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MBC 성우들의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녹음도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녹음도서 봉사를 28년 째 이어오고 계신데요. 봉사를 이렇게 오래 이어나가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처음 녹음도서 봉사를 시작했던 때가 50대 중반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서 오래 봉사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저는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 생활의 큰 변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녹음도서 봉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사실 도서를 녹음할 때에는 혼자 녹음실에 들어가서 책을 읽기 때문에 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봉사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화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예전에 어떤 시각장애인분이 제 목소리만 듣고 체구가 큰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저는 체구가 작은 편인데 말이죠.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팬레터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녹음도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기분 좋은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도서를 녹음하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 독서량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사실 도서 녹음은 일반 독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독서는 책을 읽으면서 내용에 집중

하고 곱씹어 볼 수 있지만 도서 녹음은 얼마나 정확한 발음으로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자 그 자체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도서가 많다는 것과 독서량이 많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녹음도서 봉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상생활에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음도 흐트러질 수 있고 활자 그대로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도서 봉사를 하게 되면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문맥에 맞도록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긴장한 상태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가끔 녹음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요.

Q. 올해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사실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추천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니 정말 놀랐죠. 아마 제가 연령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녹음도서 봉사를 저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 놓기 어려웠던 마음에 있는 말들도 함께하는 봉사자 분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며 공감하고 위로도 받고 했는데 도리어 상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지금 뭐든 자유로운 나이입니다. 목표를 세워 매진할 일도 없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는 나이죠. 80이 넘으면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녹음도서 봉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녹음도서 봉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진행한다면 자기 성찰은 물론 힐링도 되고 삶의 일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선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풍선 아티스트 고홍석 작가의 '예술은 생각하지마!'

**바람을 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풍선으로 만든 동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 동안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 쿰에서는 풍선 아티스트 고홍석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인 '예술은 생각하지마!'가 열렸습니다.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프레임 안에 갇힌 사고의 틀을 작품으로 탈피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은 '예술은 생각하지마!'는 풍선과 공기를 이용해 공간을 꾸며내었는데요.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크기의 풍선들이 만들어낸 조화가 전시 공간을 아름답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고홍석 작가는 풍선에 대해 "풍선의 경우 공기를 넣어 커져가는 모습에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풍선 안에 담긴 공기가 빠져나갈 때는 평온함을 느끼며 풍선으로 공간이 채워질 때 소중함은 더해지지만 한순간 풍선이 터져버리면 허무해진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무언가를 논할 때 늘 양면성을 언급하게 되는데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간에 산발되어 있는 오브제와 풍선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은 생각하지마’의 관람 방법은 매우 이색적인데요. 공간에 가득 찬 가지각색의 풍선들을 헤치며 관람할 수 있으며, 풍선에 쓰인 예술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풍선 숲을 헤쳐 나가며 커다란 하나의 풍선 조형물과 아기자기한 작은 작품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고홍석 작가는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공간 안에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고루 느끼며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술은 생각하지마!’라는 말과 같이 관람객들이 전시 공간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아내

이진규(시각 1급_경기도 의정부시)

아내가 사랑에 빠졌다. 곱게 빠진 게 아니라 아주 폭 빠져 버렸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도, 동물도 아닌 꽃이다. 한낱 식물에 불과한 꽃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저토록 야단일까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의 아침 끼니부터 챙기는 게 주부의 당연한 역할이거늘,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뒷전이라는 듯 아예 팽개치고, 맨 먼저 달려가는 곳이 꽃들이 잠에서 막 깨는 테라스다. 가면 아침 인사부터가 가관이다.

"우리 딸들, 잘 잤니?"

"딸들아, 밤새 잘 자고 내일 또 보자."

아내가 처음 화초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연유는 따로 있다.

이웃집에서 향기가 좋다고 로즈메리 한 뿌리를 얻어와 손수 키우면서 그 짙은 향기에 매료되고부터다. 식물도 남이 심어서 파는 화분보다 손수 심어 가꾸는 꽃이 아무래도 애착이 더 가는가싶다. 꽃이 무럭무럭 잘 크고 예쁜 웃음과 향기까지 뿜으니, 성취감과 함께 더 애착이 가는 듯하다. 화초가 잘 자라서 아내의 집착이 더 끈끈해지는지, 아니면 아내의 정성에 힘입어 더 짙은 향기를 뿜는지 몰라도, 아무튼 아내는 요즘 들어 나를 따돌리고 꽃들과 한통속이 되어 저네끼리 제법 오랫동안 소곤거린다.

그럴 때 나는 괜스레 오기가 나서 한 마디 거든다.

"어이구, 김 여사님, 화초 사랑하는 마음 반만 식구들에게 줘 봐요. 그러면 복 받아서 복권이라도 맞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아내는 대뜸 이렇게 받아 친다.

"화초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내 속도 안 긁잖아요. 그러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지."

아내가 꽃들에게는 시간 맞추어 물을 주면서도 식구들 식사시간이 턱없이 늦어질 때, 나도 살짝 어깃장을 부린다.

"벙어리 두 몫 떠든다더니, 당신 귀에는 말 못하는 꽃들의 아우성만 들리나보오?"

그런 내 말에 아내는 이내 이렇게 또 응수한다.

"꽃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보채지 않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런 말을 들은 며칠 뒤, 나에게도 화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다. 꽃의 향기가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는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꽃 중에서도 '로즈메리'라는 화초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항상 푸른 잎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로즈메리가 그동안 아내의 노후를 지켜주는 반려였구나!' 싶었다.

꽃의 향기를 가까이하노라면 노후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노인성 고독이 은연중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론과 함께 제법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여러 설명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화초 대하기를 참새가 쇠고기 보듯하던 나도 어느새 향기 예찬자로 진화하여 로즈메리 열성팬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아름답고 겸손하게 실천한다는 뜻으로 얻어진 이름이 '로즈메리'라는 설명도 있었기에, 요즘 들어 1주일에 몇 차례씩 교회에 열의를 보이는 아내에게는 안성맞춤인 꽃이 로즈메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이사 오면서 나는 테라스에 화초보다 토마토와 몇 가지 채소를 심었으면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다며 나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끝까지 로즈메리만을 고집하더니, 마침내는 나까지 제 영역으로 귀순시키는 성과까지 달성한 것이다.

행동반경이 점차 줄어드는 나이다보니, 나 역시 일상을 좀 더 다채롭게 엮어가려면 향기로 말을 거는 친구 하나쯤 곁에 두고 살아도 좋으리라 여겨져, 나도 그새 향기의 마니아가 되어 오늘도 싱그러운 호흡으로 아침을 열고 있다. 화초와 사랑에 빠져서라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 또한 가정과 나의 행복일 텐데, 도대체 나는 여태 무슨 배부른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아까운 노후를 허송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처럼 집안에 꽃내음 가득한 계절 한 아름을 바로 곁에 두고도 말이다.

모쪼록 저 꽃이 사람들에게 조용히 향기를 나누어 주듯 우리도 인품에서 늘 사람 내 나는 덕목의 향기를 뿌릴 일이다.

미국 시각장애인, 자폐증 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 위해 450마일 걸어

미국에 거주 중인 50세의 시각장애인 로버트 스미스가 자폐증 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부터 라스베이거스까지 450마일을 걸었습니다.
스미스는 지난 10월 19일 여정을 시작해 11월 19일, Welcome to Fabulous LasVegas 표지에서 여정을 마쳤는데요. 스미스는 약 30일 동안 고속도로를 피해 약 15마일 씩 걸었으며, 여행 도중, 스미스는 노병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양말 인형을 나누어 주는 등 친절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를 통해 스미스와 그의 팀은 오레곤 주에서 어린이를 돕기 위해 3,000달러를 모금했는데요. 스미스의 노력만큼 많은 자폐증 아동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시간 완주의 감동 와카나, 2020년 장애인 올림픽 육상대회 출전할래요!

지난 2011년 치러진 제39회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와카나가 도전 했었습니다. 와카나는 일본에서 온 최연소 참가자로 마라톤에 참가했었는데요. 미국에서 다섯번째로 큰 이 마라톤 대회는 시간 제한과 연령 제한이 없고, 완주만 하면 증명서와 메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마라톤 당일, 모든 참가자들이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와카나는 저녁이 되어서도 보이지 않아 모두들 포기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카나는 14시간 만에 모습을 보이면서 42.195km를 완주했는데요. 선천성 망막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와카나는 싱글맘인 마유미와 함께 마라톤을 준비해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와카나는 당시 14시간 3분 12초로 가장 느린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했고, 경기가 끝난 직후 “역경을 이기는 기쁨을 느끼면서 앞으로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 장애인 올림픽 육상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노원구청, 구의회와 함께 신나게 달려요!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노원구청, 노원구의회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자전거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노원구의회 이경철 의장,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의원 10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 10명과 짝을 이루어 탠덤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코스는 약 9.3km, 왕복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중간에 준비된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본 행사를 마무리 하며 복지관의 임종혁 관장은 탠덤바이크 교실에 많은 관심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 SK 나이츠 김선형 선수, 한시련에 AI 스피커 기증

지난 11월 8일, 서울 SK 나이츠 주장 김선형 선수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 AI 스피커 NUGU(누구) 100대를 기증했습니다.

최근 김선형 선수는 시각장애인을 후원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회인 농구경기에 용병으로 등장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세 가지 미션 성공으로 김선형 선수는 한시련에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약 1,500만원 상당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를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김선형 선수는 “농구를 사랑하는 팬들과의 도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장 안팎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와 사랑의 김장김치를 함께 나눠요!

지난 11월 22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LG유플러스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모여 2018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맛있게 담가진 약 450포기의 김장김치는 시각장애인 100가정에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김장김치를 받은 시각장애 가정에서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것이 김치인데 복지관과 LG유플러스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장애인용 TV 증정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홍보제품 증정식 및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증정된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모두 18대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개 지부별로 1대, 중앙회 1대가 증정되었는데요.

시·청각장애인들이 TV를 보급받아 사용하면서 모르는 기능이 생기거나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 지부에서 사용법을 익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급된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번 증정식을 통해 추후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TV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TV시청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VOICEYE
voiceye.com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우선 한쪽 손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게 하고 옆에 서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스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한발을 한 계단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등의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도 한쪽 손으로 손잡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12월 221호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